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일시 (인터넷) 2026. 6. 21.(일) 11:00
(지면) 2026. 6. 22.(월) 조간
배포 2026. 6. 19.(금) 오후

“청년이 여는 새로운 어촌의 미래” 해수부, 청년어업인 간담회 개최

- 청년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어촌·수산업의 미래 성장방안 함께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6월 22일(월)과 6월 23일(화)에 각각 경남 고성과 전남 무안에서 청년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어촌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며, 지난 6월 9일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청년 이슈 적극 발굴 및 청취가 거듭 강조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춰,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어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청년어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어선어업, 양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어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귀어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창업 및 경영 과정의 애로사항, 주거·복지 여건 개선 필요성, 스마트 수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어업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청년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이자 어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촌·수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지정훈 (051-773-5650)
		담당자	사무관	김혜수 (051-773-56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